하나님 출석체크 후 아웃

(에스겔 30:1~26)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3.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4.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 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5.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출석체크 후 아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출석체크 후 아웃'
'지금'은 말하고 행동하는 이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지금이 아닌 때에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은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의 절대성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살아가는 지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되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사람도 있고, 과거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이 있으며, 현재를 직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혼합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산다는 것은 꿈과 비전과 이상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 과거를 사는 사람은 과거에 이룬 성취로 인해 위안을 받고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마음이 억눌리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장 처한 상황에서 이익을 추구하며 삽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는 선민에게도 지금의 절대성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형태가 이방인들과 다를 뿐입니다. 다르지 않다면 선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지금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 훗날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의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민이 이방인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리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면 지금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일에 등산을 가는데 나는 예배당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일날 등산 간 사람과 똑같다면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한 모든 일들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선민의 지금이 이방인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미래를 살든지 과거를 살든지 현재를 살든지 아니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용들을 혼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출석을 체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선민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이 확인되면 지금 나는 삶의 현장에서 아웃됩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출석해 계시고, 지금 나의 마음은 세상에서 아웃되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출석하셨다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출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석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늘로 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이 땅에도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출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출석체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출석이 확인되면 나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아웃되게 됩니다.

앞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이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임할 멸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심판의 과녁으로 삼은 대상이 애굽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과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애굽의 멸망에 준하는 낭패를 겪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두로 왕과 애굽의 바로 왕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은 모두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두로 왕의 경우에는 마음먹은 대로 성취함에 근거된 교만이었고 바로 왕의 경우에는 안정감을 주는 조건과 처지에 근거된 교만이었습니다.
안심에는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감은 이 세상의 조건과 처지에 근거된 안심이고, 평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근거된 안심입니다. 바

로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주는 대상으로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의지하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본래 나일 강은 바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바로의 소유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안정감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실은 그 돈조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셈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구하는 자들은 돈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로부터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비단 구제나 기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뜻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까지도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도둑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애굽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는 가운데 애굽의 동맹국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5절을 보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 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구스는 현재의 에티오피아이고 붓은 리비아이며 룻은 리디아입니다. 또 모든 섞인 백성은 각 나라에서 애굽으로 인민을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굽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 주변국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을 맹주로 삼아 많은 동맹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애굽이 멸망할 때에 동맹국들도 멸망에 준하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6~9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언급됩니다. 9절을 보면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땅에는 늘 주변국들에서 찾아온 사절단이 머물고 있었고, 이들이 본국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배들이 오고 갔습니다. 현재의 미국을 예로 들자면 전 세계 외교관과 언론들이 상주하며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국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이렇게 커다란 동맹국의 맹주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 강에서 비롯된 풍부한 수자원과 생산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을 통해 외교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주변국들에게는 애굽의 풍요와 발전상이야 말로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지금의 절대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맹국들은 애굽

을 미래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지금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동맹국들은 애굽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은 발견됩니다. 현재의 모습을 벗어나서 되고 싶은 본보기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미국에 대해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세계를 중심으로 반미를 외치는 나라들조차도 문화적으로 미국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에서 만든 영화를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많이 보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버티고 있는 것은 대단할 정도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문제는 바로 이러한 애굽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속에 선민이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동맹국의 문제는 애굽의 안정적인 풍요로움과 강대함과 문명의 발전상을 본보기로 해서 미래를 추구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선민들만은 이방나라들처럼 애굽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방나라들이 강대한 애굽을 종주국으로 삼아 추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은 달라야 했습니다. 물론 선민들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동맹국이 되고자 안달이 났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속적 가치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삶은 보잘 것 없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의 원천인 6,700km에 이르는 나일강과 수많은 지류와 운하들에 비교하자면 요단강의 지류들은 시냇물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비옥함을 자랑하는 광활한 삼각주 평야에 비하자면 가나안 땅의 규모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지와 황무지가 많았기 때문에 척박해보였습니다. 선민들이 믿었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직 성전을 주신 것만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선민들은 잊고 있었고 성전을 바르게 적용할 줄도 몰랐습니다.

성전은 지금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지금을 살아가는 방법의 제시였습니다. 지금을 살되 애굽과 같아져야 한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살지도 말고, 과거를 돌아보며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성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이름을 두셨기에 성전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 결

과는 하나님의 출석으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닐 때에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부에 학생들 이름이 다 적혀있습니다. 과목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 출석을 체크합니다. 출석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학생이 교실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출석체크입니다.
성전의 의미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신 것은 곧 선민들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출석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나 과거가 아닌 지금이어야만 합니다. 선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지금을 살아가며 해야 되는 일은 성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출석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아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선민이 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출석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자인 사람들을 보며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구상합니다. 이렇게 지금을 통해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민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성전이 존재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출석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놓여있는 현장으로 출석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출석하시면 동시에 나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출석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땅의 것을 비움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출석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강대해보이고 풍요롭게 보이고 앞선 문명을 발전시켜나가는 선진국으로 보이는 애굽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신다면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애굽에 준하는 영화로움과 풍요로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역사를 통해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출석체크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민들이 풍요를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려 할 때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며 주셨던 말씀들이 이와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출석하셨는지를 체크하면 되었지 바알을 좇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의 선민들은 애굽을 미래의 본보기로 삼고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애굽과의 동맹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은 성전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출석체크하고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아웃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출석하시고, 선민들의 마음은 하늘에 출석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은 지켜지

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지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애굽을 바라보며 그 모습이 자신들의 미래가 되기를 추종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유명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거나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빌게이츠를 바라보며 미래를 발견하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선민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출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출석부를 들고 하나님을 출석체크만 했다면 선민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애굽의 수많은 동맹국들 틈에 끼어서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 체크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 후에 생겨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과거나 미래를 통해 지금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간단히 말해 이 땅을 살아가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반드시 상번제에 드려지는 어린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를 부르면서 허공에 외치는 것일 뿐입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속한 나의 마음을 죽임으로써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출석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지만 바울 본인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또 갈리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을 출석 체크하였던 것입니

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선교 실패를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거는 바울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말하며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과거에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습니다. 회심한 이후로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를 사는 자신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이고, 아테네에서의 실패도 죽임으로써 고린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출석체크해야만 합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여 마음을 하늘로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출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실 때에 태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는 성전의 방식을 따라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인격자로써 아버지로써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출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 삶의 현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지정의를 장갑 삼으셔서 활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삼아야 할 본보기는 애굽도 아니고 빌게이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 하나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출석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아웃되어서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출석 체크는 곧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하는 작업이 없으면 나는 과거나 미래 혹은 현재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를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 성전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출석 체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출석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시는 것을 확인하심으로써 선민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게 주신 구약의 성전과 주님의 십자가 이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출석 체크하고 나는 아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출석하심으로써 창세전부터 누리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